

여성과학기술인의 리더십 위한 전략 필요하다

글 | 최순자 _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부 교수 sjchoe@inha.ac.kr

우리 나라에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때가 약 13년 전이다. 1990년대 초 우리 나라의 이공계 대학에 더 이상의 우수한 남성과학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안이 바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안)이었다. 그 즈음 과학기술부에서는 사회에 진출한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대덕연구단지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주축으로 한 단체 결성을 지원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1993년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로 결성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초대 회장 오세화)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과학 인력의 저변 확대, 정보 및 지식 교류를 통한 연구업무의 협조,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및 권익 옹호,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생명과학분야의 박사급 여성과학자들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1년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초대회장 나도선)이 만들어졌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활용

또한 2004년 건축(설계, 구조, 설비, 전기, 인테리어 등), 도시, 교통, 조정, 토목 등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건설인들의 모임인 한국여성건설인협회(초대회장 김혜정)가 결성되었다. 이 협회는 건설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여성들이 전문성 향상과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해에 공학기술

계의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공학인들이 우수 여성공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 경력개발 및 지도자 양성, 공학기술계 여대생의 진로지도, 공학기술계 여성 활용에 대한 대정부 정책제안 및 정책 반영 등을 목표로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WITECK, 초대 회장 최순자)가 창립되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여성과학기술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여러 단체에 소속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힘을 모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2004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초대 회장 나도선)가 창립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에 대한 지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정부 기관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진 과학기술부다. 그 지원내용을 요약하면,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3년에 여성과학자 양성 및 활용 관련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 국공립 이공계 대학(교육인적자원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과학기술부) 등이다. 위와 같은 활동의 결과물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포와 함께 2004년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초대 센터장 전길자)가 이화여대에 개소되었는데, 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경력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6년에는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로 광주·전남센터와 부산·울산·경남센터가 개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개소식을 갖고 출범했다 (2006년 9월 13일, 사진제공=연합뉴스).

소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2002년 과학기술부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인 WISE와 지식경제부의 WATCH21 프로그램이다. 전자는 수학, 과학, 공학, 기술 분야에 재능 있는 여학생이 탄탄한 과학기술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생까지 다각도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여학생이 다양한 분야의 이공계 출신 여성전문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진학, 진로 및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WISE를 대표하고 있다. 2002년 WISE 거점센터(센터장 이혜숙)가 이화여대에 처음 만들어진 후, 지금은 전국적인 지원센터로 확대되었는데, 인천, 경기 등 각 시도에 13개 센터가 있고, 각 센터는 공동프로그램과 고유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WATCH21은 WITECK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으로 공학계 여자대학원생이 여대생과 여고생을 한 팀으로 묶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육과 연구(R&E) 프로그램이다. 연구 결과는 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 작성과 여고생들이 구두로 발표하게 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논문 작성 훈련과 고등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또한 대학원생은 교육자, 여고생은 피교육자, 대학생은 도우미로서 각자 맡은 바를 이행하면서 역할 분담에 따른 리더십을 키운다. WATCH21은 2007년 국가 R&D 인력양성 프로그램(산업지원부)으로 등록되었으며, 전국의 62개 팀이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40~50대 여성과학기술인 증가로 '리더십' 부각

이와 같이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단체의 사업은 크게 나누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활용이다. 교육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활용은 그들 나름대로의 활동을 통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자는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함은 물론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들끼리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후자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인프라 구축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공계 분야에 여성이 진입하도록 터를 닦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산업체는 물론 대부분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의 60~70%가 20~30대이므로 이들이 중도에서 하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너무 많으므로 직장에서 남성과 같은 업무 실적을 내기 위한 배려와 위로 등이 중요하다. 또한 40~50대의 여성과학기술인이 늘어나면서 부각되는 이슈가 리더십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현저하게 드러난 여성의 리더십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에서 가장 힘 있는 국방부 등의 장관이 여성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마치 못해 끼워 넣은 듯한 여성기용으로 퇴색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의 논문 표절에서 비롯된 도덕성 시비와 불법 농지취득의 의혹 등 부동산 관련 문제는 한국사회 여성 리더십의 모델을 왜곡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선까지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여성의 문제점과 이공계 출신 여성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경력개발이 필수사항이며, 지도자급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리더십을 위하여 전문적 기술 축적 및 개발, 대화·지도력·협상능력 개발, 도덕성과 배려, 민주적 의사소통, 멘토십과 중·횡적 네트워크 확립, 전공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정보·데이터·자원의 발견 및 활용, 근무하는 직장이나 자신에 맞는 스타일 개발 및 역할 증대, 가사·육아 등 가정 문제에 대한 건전한 균형 유지 등의 전략을 제안하는 바이다. ㉔



글쓴이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후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사랑여성모임 대표, 한국여성과학기술인 협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과학기술부 예산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WISE 인천센터 센터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